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진영. 도의국사는 한반도에 육조혜능의 남돈선을 처음 전래한 '해동 달마'다. 사진제공=조계종

'海東 달마' 도의국사 한반도 禪法 전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禪).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는 수식어를 붙게 해준 수행법. 범어로는 디야나(dhya-na), 팔리어로는 쟈나(jha-na)이다. 이를 음사하여 선나(禪那)·사유수(思惟修)라 하며, 음사와 의역을 합해 선정(禪定)이라고도 한다.

인도의 불교가 동진(東進)하며 중국에 전래되고 경전 중심의 교학불교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종파 간 경쟁이 심해지고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던 중 보리달마(菩提達磨)는 자신의 법을 펴기 위해 중국에 들어와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不立文字 敎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라는 선의 기치를 알리게 된다.

달마조사로부터 시작된 선불교는 중국의 색채가 깊게 가미된 '신불교'였다. 〈선학의 황금시대〉 저자 오경웅은 "선불교는 인도적인 아버지와 중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닮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달마 이후 혜가·승찬·도신·홍인·혜능으로 법이 이어지면서 선불교는 중국서 전성기를 맞는다. 인도에서 시작돼 중국에서 새롭게 정립·확산된 선은 이내 한반도에도 전래됐다. 바로 도의국사를 통해서다.

37년 동안 중국에서 수학하며 서당지장·백장회해의 법을 받은 도의국사는 821년(헌강왕 13) 신라로 귀국한다. 6조 혜능의 남돈선(南頓禪)이 해동으로 전래된 순간으로 한국선 1200년 역사의 시작이다. 도의국사가 전래한 선법은 손제자 보조체징에게 이어졌고, 보조체징은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열어 선풍을 크게 펼쳤다.

도의 국사 821년 韓 귀국
한반도에 禪 전래된 원년
현재 조계종 성립에 뿌리

명상 확산… 대중화 기회
시대 맞는 지도법 개발을

대륙에서 선이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한반도와의 접촉이 확인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반도의 승려들이 대륙의 지성사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선의 역사는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 성립에 뿌리가 됐다. 도의국사는 현재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고 있다.

한국의 선 수행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마음챙김 등 다양한 명상 수행법이 확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언택트 명상 수행이 유행하고 있어서다. 대중과의 소통, 시대 언어에 맞는 수행지도법 등은 앞으로 한국선이 풀어나가야 할 화두가 됐다.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온라인 선수행 지도방편을 구사해야 한다. 종단 차원에서 앱 개발,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비대면 명상문화 창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필코 중생의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원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중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중생과 더불어 공감하고 중생의 아픔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대중과의 소통 부재로부터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보물 제439호 도의국사 부도탑.

INSIDE

B11~13 신년특집 신년법어 · 신년사

B17 기획연재 정찬주 역사소설 '아쇼까대왕'

B19 기획연재 김호귀의 '한국선 톺아보기'

B21 기획연재 강소연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B23 기획연재 박원자의 '母情佛心'